

근본 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오직 ‘봄’만이 있다

| 두레박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두레박님은 SK에너지에 다니며 부족함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늘 진리에 목말라 하였습니다. 미내사를 알게 된 것은 5, 6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깨어있기 프로그램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깨어있기 기초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과정 때 예고가 잠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가서는 선생님께 제가 ‘꼭지가 떨어졌습니다’라는 표현했던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화과정 마지막 날 아침, 선생님이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화두로 탐구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 화두를 잡고 산책하면서,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뒤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세계가 짝 펼쳐지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까 그냥 그대로 ‘봄’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심화과정 갈 때는 어떤 기대 없이 그냥 갔고 거기서 그 자리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마음의 한 점 의혹이 탁 떨어지니까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편집실(이하 편) 우선 미내사에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두레박(이하 두) 미내사클럽은 4~5년 전에 인터넷 검색 중에 소식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고, 깨어있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편 그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두 저는 교회에 다녔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예언기도라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예언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구해 온 것은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물음을 가지고 예언기도에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면 퍼즐을 풀어야’라는 문구를 받았습니다. ‘퍼즐을 풀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퍼즐을 어떻게 풀까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해나가니 다가온 것은 ‘퍼즐은 풀다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맞춰 가면 되는 거야’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성훈련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스스로 찾아온 것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편 퍼즐을 풀라고 했을 때 그 말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두 퍼즐을 어떻게 풀 것인지 방법론을 찾기 시작했다가, 그러면 그 본래의 나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며 이 부분을 혼자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편 혼자서 어떻게 뭘 연습했나요?

두 제가 처음 영성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세계가 생각세계, 느낌세계, 사실세계, 진리세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생각 떼고 느낌 떼고, 그리고 나서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너머 진리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 진리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 빼고 너는 어디 있는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서재의 중간에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주변엔 서재의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물음이 오지요. 오른쪽 벽 치우고 왼쪽 벽 치우고 천정 치



우면 너는 어디 있냐? 그럼 아파트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전체 다 무너뜨리고 나면 너는 어디 있느냐? 원주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 다 무너뜨리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과 화성, 수성 그 사이에 있습니다. 태양계 없애고 어디에 있느냐? 은하계, 은하계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편 우주 다 없애면 어디에 있다고 대답해요?

두 어디 있다고 이야기 못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끔 말이지요. 그것이 내적인 느낌으로 옵니다.

편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했나요?

두 그동안은 이 몸이 나라는 것에 계속 매어져 있었고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건강상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같이 있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거기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니까 그 과정에 대해 좀더 깊은 갈급함이 생겼어요. 목사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 물을 데가 없으니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답답함이 있었지요.

편 그때는 무슨 공부를 다시 시작했나요?

두 처음에는 빼고 빼는 과정 중에 제법 관심 있던 것은 진리세계 쪽이었어요. 스스로 빼는 연습을 통해서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공부했어요.

편 그때 이후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었나요?

두 그때 이후로 제가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 왜 그렇게 느꼈던 거죠?

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마음속에 미진함이 계속 있더군요.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으니까 답답함도 있고, 이다음에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렇게 찾는 중에 깨어있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았고 호기심으로 오게 되었어요.

편 책을 봤을 때에는 크게 와 닿지 않았나요?

두 네.

편 그러면 깨어있기 기초 과정을 듣고 나서는 어땠나요?

두 월인 선생님과 했던 침묵과 고요 연습을 통해 침묵이라는 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고요’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지? 라는 흥미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지 님이 전체주의를 알려주면서, 그동안 에고랑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에고가 사라진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편 깨어있기 기초 과정을 통해 감지라는 것이 와 닿았나요?

두 감지라는 것도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기초 때는 대충 감만 잡고 갔어요. 감지연습보다, 기존에 제가 해왔던 공부와 달리 그러면 ‘나라는 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몸의 느낌에서 의식까지 계속 느껴보는 연습을 했지요. 몸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의식적으로 온몸을 스캔하며 들어갔고, 그 중간 중간에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주며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편 그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은 있었나요?



두 아니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편 그런데 그 연습을 계속 한 이유가 있나요?

두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연습하면서 진척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편 지난번 선생님과 통화할 때에는 뭔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두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봄’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월인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봄’과 잡히지 않는 ‘보여지는 자’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편 그 말이 와 닿진 않았군요?

두 네.

편 그 이후로 그러면 스캔만 하고 있었나요?

두 네.

편 깨어있기 심화과정에 와선 어땠습니까?

두 심화과정에서 충격 받았던 것은 나라는 존재의 크기를 정하고 경계를 짓고 그 크기를 재어 봐라 했을 때 나라는 것의 크기는 10에서 7센티 정도라는 것, 나라는 존재의 크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신념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신념에 대해 5가지를 적으면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신념들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을 안했어요. 작게 되겠다 싶었는데 이 신념의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인식하는 이 주변 전체의 크기로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와 닿은 것은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것들인데 이 느낌은 크기가 주변 전체를 다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두 번째는 ‘있음’과 ‘주의에 주의 주기’였습니다. 처음 ‘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있음’ 상태로 산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라는 개별적인 느낌이 없이 그냥 ‘있음’만 있더군요. 있음이 보고 있고, 있음이 걷고 있었어요. 있음이 걷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려나? ‘걷고 있음’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툭 떨어져 나가고...

편 있음이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두 그때 기뻐지죠.

편 뭐가 기뻐요?

두 그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감이 계속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나’라는 존재감이 딱 붙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싶은데도 그쪽으로 가는 나를 보게 되고요.

편 생활 속에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뭐가 불편한 거지요?

두 직장 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힘든 것은 아니고, 내가 ‘나’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계속 ‘나’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편 내가 나가 아니란 걸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한하다는 것을 안 것인데, 그런데도 작은 나에 자꾸 매인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매였다는 겁니까?

두 그냥 모든 것을 할 때 ‘이놈’이 ‘한다’라는 의식이 계속 붙여 다녀요. 계속 동일시되어서.

편 ‘내가 한다’라는 것이 있어도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한다’라고 해도 부드럽게 잘 해나가면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안



이 상태,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지만 이 '봄'을 통해서, 다 '봄'이더라고요.
냄새 맡는 것도, 맛을 보는 것도 봄이고. 그 봄을 통해서 배경에 있는 것,
무언가를 '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식 자체...

돼!'라는 그 생각이 힘들게 한 것인가요?

두 '있음'을 경험하고 나서 선생님이 '있음'은 근본의 그림자라고 하셨
잖아요.

편 일단 '있음' 경험에서 '나'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기쁨이 왔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무無가 아니라 하나까 또 다시 마
음이 흔들렸군요.

두 그렇죠. 있음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럼 근본은 무엇이지? 라는 질
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감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월인 선생님께서 화두로 잡았다는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으나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곰곰이 살펴보는데 번
뜩 오는 것이 있더군요. 내가 '있음'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
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해야 할까요.

편 있음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두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아! 이 상태,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
하지만 이 '봄'을 통해서, 다 '봄'이더라고요. 냄새 맡는 것도, 맛을
보는 것도 봄이고. 그 봄을 통해서 배경에 있는 것, 무언가를 '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식 자체...

편 '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이군
요. '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까?

두 네. 그것은 계속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모르다가 이제야 그쪽으로
눈을 돌려봤다라고 해야 할까요.

편 그동안은 앞만 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뒤를 본 것이군요. 그동안은 앞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고 있게 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죠. 보고 있는 그것이 ‘투명한 주체’거나 ‘본질’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보고 있는 그것을 근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주체이고, 주체와 근원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개별적일 때는, 예를 들어 저 탁자를 볼 때는 탁자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는 자’ 역시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인 대상을 보고 있는 개별적인 주체이지요. ‘상’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있음’을 경험할 때는, ‘있음’이라는 것이 투명한단 말이에요. 투명함을 경험하는 주체 역시 어떻게요? 투명함일 것 아닙니까? 투명한 주체이지요. 투명한 주체는 뭔가 개별적이지 않으므로 특별히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투명한 주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두레박 님이 본 것은 뭐예요? 뭘 봤다는 거죠? 뒤돌아서 본 것이 됩니까? 탁자를 보는 ‘내’가 아니었어요.

두 탁자를 보는 ‘나’가 아니었어요.

편 그럼 뭐였죠?

두 그것은 말로 하자면 전체, 개별적인 것이 아닌 전체를 다 보는 것.

편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개별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개별적인 것을 보는 주체마저도 보는.

두 제가 한동안 했던 것이 개별적인 것을 보고서는 그것은 ‘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개별적인 것을 볼 때는, 개별적인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전체를 보는...

편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 거죠.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보는 건 아니죠.

편 그럼 뭐죠?

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편 표현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네.

편 그것을 어떻게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전체를 다 보니까요.

편 본다는 기능, 이 기능은 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일어나는 기능 아닙니까? 전체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가 없는 전체를 본다는 것은 뭐니까? 어떻게 본다는 거죠? 아까 아침에 봤던 것이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할 때 번뜩 다가온 그것은?

두 그 전체를 보는 것. 그냥 새소리, 물소리, 바람, 산, 하늘, 모든 것들.. 그냥..

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예요?

두 아니요. 그것을 넘어 우주가 시작된 자리? 우주가 시작되고 소멸되어도 그냥 남아있는 그 자리.

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침에 통찰이 왔던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두 네.

편 왜 흔들리지 않죠?

두 그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흔들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 대답은 흔들리는데, 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대답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대답이 흔들리는 거고, 그 자리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편 왜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두 그 자리는 불변하는 자리고 영원한 자리이기에...

편 보이지 않는 주체와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의 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편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두 네.

편 잘 모른다면서요. 잘 모르는데 왜 흔들리지 않죠?

두 주체와 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주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원은 흔들다고 흔들리고 폭파시킨다고 폭파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편 주체는 몰라도, 경험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두 네.

편 다시 간단한 설명하지요. '내'가 사물을 볼 때, 개별적인 타자를 볼 때는 '개별적인 주체'가 있는 거죠.

두 네. 그것만 보는.

편 지금은 타자를 보면서 타자를 보는 내가 있죠.

두 네.

편 그리고 타자를 '보는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네.

편 그것이 바로 주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주체. 보이지 않는 주체도 근원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보여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무언가 ‘주체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내가 탁자를 보고’ ‘탁자를 보는 나’를 느끼고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자를 보는 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 근원을 증거 한다는 것입니다.

두 그렇죠.

편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주체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왜 나타난 놈인가 하면 이 놈이 다른 것을 볼 때는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나고 이 놈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 이 놈은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은 어떨까요?

두 근원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죠.

편 그런데 그것이 주체인지 근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두 주체는 변함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변함이 있고...

편 무엇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두 근원과 같은 성질, 근원과 닮긴 했다 해도 변함이 있고, 근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편 지금,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두 네.

편 변함이 없는 자리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두 변함없음.

편 변함없음이에요? 그러면 그 ‘나’는 뭘니까? 변함없는 자리에 있다는 나는 뭐죠? 존재하는 나예요?

두 아니요. 그냥 있는 이름이네요.

편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네.

편 지금까지 나라고 여겨왔던 건 뭡니까?

두 허상이죠, 파도.

편 그것이 파도였는지 어떻게 알지요?

두 그것은 항상 변하니까요. 대상에 따라 변하고 오는 것에 따라 변하고..

편 그것이 변한다는 것은 누가 아는 거죠? 변화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군가요?

두 그 '얇'이 있어요.

편 얇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얇이 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변한다는 것을 아는 얇만 있어요.

편 변한다는 것을 아는 얇만 있어요? 나라는 것이 끝없이 변한다는 것... 끝없이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 지금 나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두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

편 없어요? 지금 '나'라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두레박'이라고 하는 '나', 평상시의 그 '나'라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두 이놈은 이 사회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상이예요.

편 그러면 그 '상이라고 아는' 것은 누군가요? 지금 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이네요.'라고 아는 것은 누구지요?

두 아는 '자'가 아닙니다.



편 그런데 어떻게 앓이 일어나지요?

두 ‘그 놈’이 있기 때문예요.

편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앓이 일어나요? 그 ‘앓’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죠?

편 내가 살아왔고 나라고 여기는, 그런 놈이구나!라고 말하려면,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했고 그런 놈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데이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여기는 놈이 ‘나’라고 여기게 말하려면, 지금 그 데이터를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열람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나’라고 여기는 놈의 행태를 열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열람했냐는 거지요.

두 (침묵....) 모르겠습니다.

편 무엇이든 열람을 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봤지요? ‘두레박’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내 기억 속에서 쪽 봤을 거 아니예요? 열람을 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열람을 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놈이 뭐냐는 거죠, 그놈이 그놈입니까?

두 (침묵....)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편 하여튼 열람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지요.

두 (고개 끄덕임) 네, 알아요.

편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모른다고 몇 번이나 말했음에도요.

두 (고개 가로 저음) 그런 건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편 왜 상관없어요?

두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편 네. 좋습니다.

(고요한 목소리로) 그래도 설명은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열람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의 기능 아닙니까? 기능이 일어나고 있지요?

두 (고개 끄덕임)

편 그리고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아니지만 기능이 일어나도록 해주지요.

두 네.

편 이런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피고 관찰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통찰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감사합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